

정시기도 (사도행전 10:1-16)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을 쳐다보고 살기 바쁘다. 시대는 자꾸 약해져가고 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밖에서 속이고 있다. 이런 것이 보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탕에 깔려야 한다. 교회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문화나 영적 문화 같은 사단적인 것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쳤다.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대부분은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여기에 눈이 열렸다. 그 사람들이 처음 날때부터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생각이 달랐다. 그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기 바란다. 문화가 영망진창이 되어서 계속 성도들을 공격한다.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다. 많은 교회들은 렘넌트 운동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유가 무엇이나면 렘넌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는 것이다. 바깥에서는 계속 사단의 문화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다. 절대로 지면 안된다. 지면 자기 손해이다. 자기가 죽는다.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오늘 예배 드리기 바란다.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언약이나,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다. 진짜 예배냐,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다. 얼마나 쉬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주간에 WRC 중요한 주간이었다. 세가지 중요한 단어를 주셨다. 아주 시대에 맞춰서 주신 단어이다. 렘넌트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이었다. 이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이것이 근본이다. 씨름을 해야 한다. 사단은 이것을 죽어라고 방해한다. 우리는 죽어라고 이겨하고 싸워서 결국 이뤘어야 한다. 두 번째 주신 단어가 파수망대이다. 현장을 보라는 것이다. 미국 현장을 보라는 것이다. 미국 교회 현장을 보라는 것이다. 이게 니 눈에 들어오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하고 사실은 관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저 응답만 받고 싶어 하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망대 이야기 하면서 눈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상이 얼마만큼 사단에게 죽어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만큼 사단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사단에게 얼마만큼 연약하게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가 되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목사이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예배 안오면 참 안타깝다.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면 되는가? 말하면 될수도 있다. 때로는 말하면 더 상처 받는다. 담임목사도 자기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가 되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생각이 나와 통하냐? 이것이 하나님 메시지이다. 없으면 내 인생 내가 내것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응답 많이 받을수 있는데, 큰 응답, 시대적인 인생, 시대적인 응답 그건 안된다. 큰 인생 한번 살고 있다 그런 생각있는 렘넌트, 사명자, 새로 결심하라. 분명히 응답 온다. 우리는 미국을 살릴 교회이다. 이 큰 미국이 3억 몇천명을 살릴만한 교회인가?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되어서 죽어가는데, 이것을 살릴수 있는 교회인가? 그건 다음 문제이고, 니가 이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사명자, 중직자,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기도 응답 하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근본 기도응답이다. 이것 안에 들어 있으면 그냥 응답이 오는 것이지,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이다. 니가 누구냐는 것이다. 니가 받고 싶은 응답에 대하여는 누구냐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더 심각하게 교회안에서는 해야 한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부터 차츰차츰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언약 잡아야 할 사람이 있다. 모든 사명자들이 그렇게 되기 바란다. 렘넌트, 청년 여러분도 이런 부름을 받기 바란다. 뭐가 가치가 있는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라. 내일 죽을수도 있다. 세 번째로 준 단어가 안테나이다. 237과 오천종족과 통하는 눈, 소동이다.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는 마음이고 기도이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할 세가지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놀라운 일

을 두고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다. 언약을 잡으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뱀의 머리는 박살이다. 나는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에서 나온다고 언약을 잡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잡는 것이다. 예배는 신자의 무기이다. 대부분은 은혜받고 끝낸다. 대부분은 메시지 듣고 끝낸다.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다. 진짜는 예배는 신자의 무기이다. 뱀의 머리를 지금 박살냄으로 내가 해방을 받고 증인이 되는 무기이다. 언약, 기도, 예배, 이것들이 무기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이다. 정말로 응답은 이것으로 받는 것이다. 공부를 잘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고 Nothing인데, 절대 안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언약, 기도, 예배 이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이다. 응답 잘 안되는 분은 이거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답으로 고백하라.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의 시대적인 문이 열릴줄 믿는다.

1. 정시기도

본문에는 중요한 다민족 사명자 고넬료가 나온다. 그리고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극적으로 만나서 복음운동하는 장면을 기록해냈다. 1절에 의하면 고넬로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특수부대의 백부장이다. 부하가 백명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2절은 보면 이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그리스도를 잘 알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구시쯤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 한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으니 청해서 너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때쯤 돼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거기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데 환상이 보였다. 큰 보자기 같은게 내려왔는데, 12절 보면 땅에 있는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이 안에 있었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것을 다 잡아 먹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고 속된 음식이기에 못 먹는다고 했다. 율법에 못먹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평소에도 절대 안 먹는다고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세 번 있고 난 후에 그 보자기 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방인 보고 하는 말이다. 너는 이방인들보고 깨끗하지 못하다 속되다 하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니가 속되다고 하면 되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그 집에 당도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잠은 단어가 정시기도이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을 봤다고 되어 있다. 제 9시는 오후 3시쯤이다.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이 보였고 제 6시쯤 되었다고 하였다. 6시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이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기도했더라고 하지 않고 시간을 딱 써냈다. 그 말은 이 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제 9시쯤 되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9시라고 해서 기계처럼 딱 9시가 아니라 그 즈음에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표현이다. 분명한 것은 이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지금도 간증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다. 아들이 완전 망나니라 어머니가 할 일이 없어 기도만 했더니 어느날 뒤집어 쳐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튜브 보면 이런일이 가득차 있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식이 산다는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기도하면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빌립보 4장 6-7절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사도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중에 나타난 것들을 바탕으로 고백한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문제가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아뢰라.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 평생을 두고 자기 현장에서 발견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니가 만일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역전이 되어 축복으로 바뀐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는 복음 다음으로 중요하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가 없으면 약속과 권세는 그냥 거기에 있

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것이 요 19:30절이다. 완성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나? 이제 니가 그것을 사용해라. 그 말이다. 이미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니가 두려라.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기도로 이것을 사용하면 돼. 그게 요 19:30절이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다 믿는다. 확신한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도 확신해야 한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것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내가 만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도로 하면 다 이루신 그것이 내 현장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그 말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기 싫은 것이다. 잘 안된다. 어렵고 힘들고 자고 싶다. 이것이 문제이다. 기도는 안하고 놓고 있는데, 응답만 왔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이렇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살다보면 기도 안하고 노는데 응답은 올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한다. 힘들다. 시간 지켜서 기도하려면 힘들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하면 100%고 안하면 0%이다. 안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도 안하면 안한 것이다. 기도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엉망이어서 기도한건 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라고 안하고 그냥 하라고 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을 칠지 않칠지, 탁구로 하면 내가 공을 하나님께로 넘긴 것이다. 기도하면 분명히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지 인정한다. 어쩌되었든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누구든지 인정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영적문제가 아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수는 없다. 사단이. 이제 그 다음것을 막아야 한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쫓아내는 분인데, 그 분 메시지를 몇 개 봤다. 이름 이야기 하면 다 알 것이다. 귀신이 나가는 것이다. 나가기 전에, 귀신과 대화하는데, 저년이 내가 절대 기도하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기도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갔다. 우리 기도를 과소평가하는데, 기도제목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 속으면 안된다. 저년이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는 늘하는 기도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했던 것이다. 우리 다 그렇다. 기도하기 싫다. 그러나 해야 한다. 하면 한 것이다. 이미 구원 받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4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모두 24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그 24에 도달하기 전까지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기 싫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하고 알람도 울리고 해야 한다. 그리고 써보기도 하고, 내 기도문을 쓰는 것이다. 쓰기 힘들면 타이프 쳐야 한다. 요즘은 성경 통독하는데 타이핑하는 팀들도 있다고 한다. 쓰는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오늘 본문, 정시기도때 기적이 일어났다. 잘 하는 정시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셨다. 우리도 이것 두려야 한다. 시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 뱀의 머리는 반드시 박살날 것이고 나는 저주에서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기도 체질되면 우리는 인생 응답의 인생 살 수 있다. 정복하는 인생 될 수 있다. 응답을 계속 하면 정복하게 된다. 인생에 놀리고 문제에 놀리면 안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언약을 알고 있다. 남은 것은 진짜 기도이다. 정시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바란다.

2. 사명자

사명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천명, 소명, 사명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이유이다. 그 뿐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이 사명이 힘이 된다. 하나님 응답주세요, 요구할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사도행전 10:24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넬료가 참 사명자이다. 우리도 다 이렇게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넬료는 다 알고 있었다. 그 때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몰랐다. 그래도 딱 친척들, 주위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경건한 중과 부하를 데리고 있었다. 7절에 보면 집안 가운데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을 심부름을 시켰다. 이미 자기 주위에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가 있으니 제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운동을 할 생각 가진 사명자였다. 그런데 시대적인 사도, 베드로가 오는데,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다. 이게 조장의 임무이다. 이 시대, 이런 사명자, 전도자를 찾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 바란다. 전도는 일이 아니라 축복이다. 응답 받는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인생 정복한다. 렘넌트들도 공부 잘 안해도 된다. 필요한 것 당연히 해야겠지만 언약 잡고 전도자의 인생 살면 인생 역전이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인생 사는 것이다. 이게 단순한 인생,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다. 최고의 응답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틀림없다. 딱 마음에 잡고 언약으로 잡으라.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말한지 오래 되었다. 메시지 속에서도 늘 듣는다. 한국 교회도 약 50%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그게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20년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렘넌트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왜 교회가 이렇가? 이유는 한 개 있다.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없다. 렘넌트 청년들은 답이 필요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불안했다. 약대 다녔다. 약국하면 굶어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평균 이상은 누구든지 산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했다. 마음이 안정이 되기까지는 40이 넘었다. 그 전에는 뭔가 불안했다. 다 그럴 것이다. 여기에 답을 줘야 한다. 완전 답은 증거가 왔을 때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도 영적인 답이라도 줘서 싸워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도 하나님이 응답한다. 언약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불안하다. 안 믿어져도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 중직자 제자가 필요하다. 내 자식만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 잘 키워야 한다. 그러면 내 자식이 복 받는다. 내 가문에 태어날 후손들 복 받는다. 하나님 자식들을 위한 나의 헌신을 보일 때,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복 받는다. 그리고 다민족 중요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민족이다. 우리는 다민족, 대우 잘 해야 한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남미 살려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국 사람들의 교회,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 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좋은 교회도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특성, 포기해야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뭔가 있을 프로그램들의 특성같은거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일부터 엔제나다 집회한다. 혹시나 미국 복음 역사에 시대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기도 못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되지도 않을 소리, 미국을 살리게 해주세요, 시대적 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같은 것을 해야 지 싫어도 하나님은 안그러실 것이다. 지금 마리오 전도사와 이스라엘 목사가 쿠바에 가 있다. 14일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카톡을 보냈더니 3일만에 답이 왔다. 거기에 인터넷 사정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서 김태호 장로에게 보내라고 했다. 사명 중요하다. 언약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사명 중요하다. 사명없으면 힘 없다. 할 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무슨 힘이 나겠나? 그리고 이유 없다. 기도할 이유없고, 살아갈 이유 없다. 사명 회복하기를 축복한다. 무조건 세계복음화 선택해야 한다. 돌아볼 것도 없다. 그냥 선택하고 가는 것이다. 하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없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다.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다. 정탐꾼들에게 이야기 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 선택하고 끝내버렸다. 거기에 맞는 응답이 왔다. 간단하다. 세계복음화 선택하라. 이런 저런거 신경쓰지 말라. 누가 뭐라하더라도 신경쓰지 말라. 렘넌트들, 딱 세계 복음화 선택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품만 잡아도 기적이 일어난다. 정시기도, 기도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라. 하면 100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 기적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에 헌신하면, 나도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은 반쯤은 안다. 여기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계속 연다는 것을 반증도는 안다. 나의 현상이나 인생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보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다 른거, 싹 버리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고, 정시기도, 축복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실줄 믿는다.